

정신병동의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박 미 선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양 수* · 유숙자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의 의료서비스는 질병치료 위주가 아닌 건강의 유지, 증진, 질병예방 나아가서는 재활을 보다 강조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간호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인력이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간호의 전문화 움직임은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수준의 향상, 인구구조와 질병 패턴의 변화, 건강관리의 복잡성 증가에 따른 의료직의 분화,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 간호사들의 전문직 성장에 대한 요구, 세계적인 간호전문화 추세 등이 상호 관련되어 자극요소가 되고 있다.

여러 전문직종이 공존하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타 전문직 종사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태도, 주어진 역할을 행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 기술능력을 소유하여야 하고, 건강관리

영역 내에서의 독자적인 영역확보 및 간호실무에서의 자율성 신장과 질 보장을 위한 전략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간호의 전문화면에서 볼 때 정신간호분야는 1973년 의료법에 정신간호사가 분야별 간호사로 규정되어 전문분야로 인정받은바 있고 정신보건법 제정을 앞두고 1990년 6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 90-44호에 '전문간호사 과정에 관한 고시'내에 '정신간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교과 과정이 제시되면서 정신간호사 훈련과정 이 시작되었다. 이에 의해 1992년 6월 용인정신병원에서 15명의 정신간호사가 처음 배출되었고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보건간호사로 개명되었으며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 임상 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포함된다. 정신보건간호사는 이론 150시간, 실습 850시간의 1년 수련 과정을 이수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증을 받게 되며 건강 관리 체계 속에서 정신보건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기여해야 하므로 정신건강의 유지 및 촉진 뿐 아니라 인간의 잠

* 교신저자 (E-mail : sooy@cmc.cuk.ac.kr)

재력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보건간호사는 정신보건법이라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활동한다(이충순 등, 1996).

최근 Johnson(1998)은 정신보건전문간호사(psychiatric/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가 되기 위한 '5R'을 발표하였는데, 이론적 근거(rational), 준비성(readying), 역할(role), 규약(rule), 현실성(reality)이 그것이다. 이들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전문간호제공자로 등장했다(양경숙, 1999). 따라서 이들이 제공하는 간호가 간호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기초로 자신의 전문직 업무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신념과 태도 지각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은 간호전문직에도 적용된다(김명희, 1985).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를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라고 하는데,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과 자존감, 자신감이 향상되어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반면, 전문직 자아개념이 낮은 간호사는 생산성을 저하시킨다(Arthur, 1990). 따라서 간호전문직이 건강서비스의 전문화에 따른 대상자들의 간호요구에 부응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간호사의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 중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김수지 등, 1996; 김현미, 1998; 서보경, 1995; 송경애와 노춘희, 1996; 이영현, 1995; 윤영미, 1997) 그 중에서도 정신간호사는 특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는 이유로 대상연구에서 제외되어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간호사에 대한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다(양수와 유숙자, 2001; 이광자와 김경희, 1999).

이에 본 연구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 정신간호사와 정신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와 차이, 영향요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전문인으로서 보다 높은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는 일반간호사와 정신보건간호사의 전문직자아개념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전문직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한다.
- 2)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자아 개념 정도를 파악한다.
- 3)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병원 정신과 8개 기관과 정신병원 29개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것 중 응답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하고 663명(94.7%)의 응답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정신보건간호사는 227 명이었고 자격증이 없는 일반간호사는 436 명이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1월3일부터 2월1일까지였다.

2. 연구도구

1) 전문직자아개념 척도

Arthur(1990)가 개발한 전문직 자아개념도구(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직 실무, 만족감, 의사소통 영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 교수 2인과 정신과 근무경력 20년 이상 간호사 2인에게 문항을 검토 받아 중복의 느낌이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 24문항만을 이용하였다. 또한 이영현(1995)의 연구와 이광자와 김경희(1999)의 연구를 토대로 '내가 간호업무를 창조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문항을 전문직 실무에서 빼고 만족영역으로 포함시켜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2) 문제해결능력 인식척도

이 척도는 Heppner와 Petersen(1982)이 개발한 것을 유정수(1982)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5 문항에 6점 Likert척도인 것을 본 연구에서는 응답의 중앙 집중화를 막고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4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11문항), 접근회피양식(16문항), 개인적 통제력(5문항)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되어있으며 3개의 총 전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척도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기술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스타일에 대한 자가 평가적인 인식을 측정한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긍정적 또는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전체점수는 전반적인 문제해결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3) 직무만족 측정 정도

이 척도는 Slavitt 등(1978)이 개발한 '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을 번역하여 김태현(1998)이 수정, 보완한 것을 이용하였다. 내용은 전문직 위치 5 문항, 의사와의 관계 2문항, 상호작용 2문항, 자율성 3문항, 행정 3문항, 업무요구 3문항, 환자 및 가족과의 관계 2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김태현(1998)의 연구에서는 5점 척도인 것을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두군의 일반적 특성은 χ^2 -test로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였고,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으며, 두 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two-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또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단계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1-57세 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정신보건간호사는 31-35세가 가장 많았고 일반간호사는 21-25세가 가장 많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혼 상태는 정신보건 간호사는 대부분이(70.7%) 기혼인 반면 일반간호사는 미혼이 64.2%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은 정신보건 간호사의 69.2%와 일반간호사의 85.1%가 전문대 출신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는 정신보건간호사는 기독교가 가장 많았고 일반간호사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가장 많아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 군의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정신보건 간호사는 121-180개월이 가장 많고 다음이 61-120개월, 13-60개월 순 이었고 일반간호사는 13-60개월이 43.9%로 가장 많아 정신보건 간호사보다 짧아 차이가 있었다. 정신과 경력 역시 정신보건 간호사는 29.8%가 121-180개월이었고 일반간호사는 13-60개월이 46.6%로 가장 많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 군의 월수입은 정신보건간호사는 101-150만원 사이가 가장 많고 일반간호사는 101-15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아 차이가 있었다. 정신과를 택하게 된 동기에서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표 1).

2.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정신보건 간호사는 2.82 ± 0.27 점, 일반 간호사는 2.66 ± 0.27 점으로 두 군간에 차이가 있었다($p = 0.0000$). 이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실무는 정신보건 간호사가

2.68 ± 0.28점, 일반 간호사가 2.48 ± 0.30점으로 두 군간에 차이가 있었으며(p=0.0000), 그 중에는 지도력(p=0.0000) 과 융통성(p=0.0000) 그리고 기

술(p=0.0000)면에서 모두 차이가 있었다. 만족감 역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24) 의 사소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분 류	정신보건간호사		일반간호사		χ ²	p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세)	21-25	18	7.9	199	45.6	145.225	0.001
	26-30	37	16.3	98	22.5		
	31-35	68	30.0	84	19.3		
	36-40	48	21.1	31	7.1		
	41-57	56	24.7	24	5.5		
	합계	227	100.0	436	100.0		
결혼상태	미혼	60	26.4	280	64.2	88.998	0.001
	기혼	161	70.9	155	35.6		
	기타	6	2.6	1	0.2		
	합계	227	100.0	436	100.0		
학력	전문대	157	69.2	371	85.1	25.125	0.001
	간호대학	47	20.7	50	11.5		
	대학원	23	10.1	15	3.4		
	합계	227	100.0	436	100.0		
종교	기독교	71	31.3	158	36.2	162.305	0.001
	천주교	59	26.0	69	15.8		
	불교	36	15.9	40	9.2		
	무	57	25.1	163	37.4		
	기타	4	1.8	6	1.4		
	합계	227	100.0	436	100.0		
근무경력(개월)	2-12	3	1.3	80	18.5	205.346	0.001
	13-60	36	16.1	190	43.9		
	61-120	48	21.4	87	20.1		
	121-180	76	33.9	56	12.9		
	181-240	34	15.2	14	3.2		
	241이상	27	12.1	6	1.4		
	합계	224	100.0	433	100.0		
	정신과경력(개월)	2-12	3	1.3	141		
13-60		64	28.4	201	46.6		
61-120		63	28.0	65	15.1		
121-180		67	29.8	23	5.3		
181-240		23	10.2	1	0.2		
241이상		5	2.2				
합계		224	100.0	431	100.0		
월수입(만원)	100이하	25	13.3	169	44.5	6.391	0.270
	101-150	94	50.0	169	44.5		
	151-200	55	29.3	38	10.0		
	201이상	14	7.4	4	1.1		
	합계	188	100.0	380	100.0		
동기	적성	95	46.3	194	49.1	205	100.0
	가족, 친지, 선생님 권유	27	13.2	46	11.6		
	자기발전의 기회	17	8.3	45	11.4		
	독자적역할수행	22	10.7	23	5.8		
	직장의 부서배치	23	11.2	41	10.4		
	보수 + 기타	21	10.2	46	11.6		
	합계	205	100.0	395	100.0		

〈표 2〉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대 상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	p
전문직자아개념	정신보건간호사	201	2.82	0.27	6.55	0.0000
	일반간호사	349	2.66	0.27		
전문직 실무	정신보건간호사	203	2.68	0.28	7.71	0.0000
	일반간호사	364	2.48	0.30		
지도력	정신보건간호사	218	2.78	0.38	6.42	0.0000
	일반간호사	399	2.58	0.38		
융통성	정신보건간호사	212	2.92	0.35	6.37	0.0000
	일반간호사	386	2.73	0.35		
기술	정신보건간호사	220	2.97	0.36	6.95	0.0000
	일반간호사	424	2.74	0.40		
만족감	정신보건간호사	220	2.81	0.42	3.04	0.0024
	일반간호사	422	2.70	0.47		
의사소통	정신보건간호사	226	2.60	0.33	1.52	0.1284
	일반간호사	429	2.56	0.30		

3. 두 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두 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월수입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일반적 특성과 집단간의 상호작용이 없이 정신보건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자아개념이 높아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연령, 결혼상태, 학력, 근무경력, 월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경우에, 기혼이 미혼보다, 학력이 높은 경우, 근무경력이 긴 경우, 월수입이 많은 경우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특 성	구 분	정신보건간호사			일반간호사			source	F	p
		빈도	Mean	SD	빈도	Mean	SD			
연령(세)	21-25	17	2.74	0.27	159	2.59	0.28	group 연령 group×연령	13.52 4.08 0.24	0.0003 0.0029 0.9160
	26-30	29	2.79	0.26	75	2.17	0.27			
	31-35	64	2.80	0.25	66	2.72	0.28			
	36-40	38	2.79	0.25	27	2.70	0.21			
	41-57	53	2.91	0.30	22	2.80	0.23			
결혼상태	미혼	55	2.75	0.27	226	2.64	0.28	group 결혼상태 group×결혼상태	21.90 5.56 0.53	0.0001 0.0041 0.4688
	기혼	141	2.88	0.26	123	2.71	0.26			
	기타	5	2.95	0.30						
학력	전문대	139	2.79	0.28	296	2.65	0.27	group 학력 group×학력	12.10 5.63 0.05	0.0005 0.0038 0.9556
	간호대학	41	2.86	0.25	40	2.72	0.29			
	대학원	21	2.92	0.24	13	2.81	0.22			
종교	기독교	63	2.81	0.26	130	2.67	0.29	group 종교 group×종교	6.03 1.66 0.49	0.0144 0.1580 0.7412
	천주교	50	2.88	0.25	54	2.71	0.30			
	불교	34	2.82	0.26	28	2.67	0.20			
	무	50	2.80	0.31	133	2.62	0.26			
	기타	4	2.72	0.16	4	2.79	0.32			
동기	적성	84	2.80	0.29	152	2.70	0.28	group 동기 group×동기	26.79 2.07 0.90	0.0001 0.0673 0.4814
	가족, 친지, 선생님권유	25	2.82	0.21	37	2.58	0.29			
	자기발전의기회	13	2.72	0.18	40	2.61	0.26			
	독자적역할수행	20	2.84	0.19	22	2.74	0.24			
	직장의부서배치	19	2.87	0.32	37	2.70	0.25			
	보수+기타	20	2.79	0.33	36	2.57	0.27			
근무경력 (개월)	2-12	2	2.77	0.21	59	2.60	0.25	group 근무경력 group×근무경력	5.05 2.96 1.01	0.0250 0.0121 0.4120
	13-60	32	2.76	0.27	153	2.62	0.29			
	61-120	39	2.74	0.26	71	2.74	0.25			
	121-180	71	2.86	0.25	45	2.73	0.26			
	181-240	28	2.91	0.27	13	2.77	0.21			
	241이상	26	2.84	0.29	6	2.83	0.2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계속)

특 성	구 분	정신보건간호사			일반간호사			source	F	p
		빈도	Mean	SD	빈도	Mean	SD			
정신과경력 (개월)	2-12	2	2.94	0.44	107	2.62	0.25	group 정신과 경력 group×정신과 경력	6.04	0.0143
	13-60	55	2.77	0.25	166	2.66	0.30			
	61-120	56	2.78	0.27	51	2.75	0.25			
	121-180	63	2.86	0.27	19	2.72	0.25			
	181-240	19	2.94	0.26	1	2.67	0.25			
	241이상	4	2.86	0.24						
월수입	100이하	22	2.74	0.32	132	2.58	0.26	group 월수입 group×월수입	2.86	0.0915
	101-150	80	2.80	0.27	134	2.73	0.26			
	151-200	51	2.85	0.26	31	2.75	0.24			
	201이상	11	2.97	0.23	4	3.00	0.21			

〈표 4〉 각군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Group	Variable	Parameter estimate	partial R ²	model R ²	F	P
정신보건간호사	직무만족	0.3884	0.3492	0.3492	88.5475	0.0001
	문제해결능력	0.4009	0.0840	0.4332	24.2943	0.0001
일반간호사	직무만족	0.4479	0.3682	0.3682	162.5670	0.0001
	문제해결능력	0.4747	0.1301	0.4983	72.1138	0.0001
	연령	0.0051	0.0119	0.5102	6.7295	0.0100
	기타종교	-0.0884	0.0111	0.5213	6.4145	0.0119
	불교	0.3223	0.0089	0.5302	5.1898	0.0235

4. 각 군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 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정신보건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에는 직무만족과 문제해결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43.3%를 설명하고 있었고 일반간호사는 직무만족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연령, 종교(기타종교, 불교)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의 53.0%를 설명하였다(표 4).

IV. 논 의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이후로 정신보건간호사의 다양한 역할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체로 정신보건 간호사의 역할은 자문가, 상담가, 일차 치료자, 연구자, 교육자, 임상조정자, 행정가, 사례관리자, 관리자로 설명되고 있다(이경순 등, 2000). 점차 확대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직으로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아개념은 한 개인이 자기위주의 세계를 이해하고

평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준거기준이며,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고 대인관계나 기타 인간행동에 강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중심요소가 된다(Stuart & Sundeen, 1995). Hall과 Lindzey(1970)에 의한 자아개념은 자기자신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감정 또는 행동과 적응을 통제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신념, 태도, 견해들의 총체로 설명하고 있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란 간호전문직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자아개념(Arthur, 1990)으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기 자아에 대한 정신적 지각을 말한다(Geiger & Davit, 1988).

Leddy와 Pepper(1985)는 개인의 자아체계는 전문직 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전문직자아의 발달은 자아의 발달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긍정적이면 필연적으로 더 생산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전문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효과적인 독립기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송인자(1993)의 연구에서 일반인은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반영한 반면, 간호사의 경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여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전문성, 진료분야의 기여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간호교육에서 학생들이 자기 확신과 자아 존중감, 아울러 전문직 자아개념 확립을 위한 전략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Strasen(1980)이 제시한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증대 방안을 보면, 첫째는 간호계 지도자들 스스로가 확고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전문직 지도자다운 사고나 행동을 보여주는 역할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는 간호사들이 확고하고도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양질의 간호업무를 창출할 뿐 아니라 그 효율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됨에 따라 Arthur(1990)는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Arthur(1990)가 도구를 개발해 호주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는 4점 만점에 3.41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그 동안 국내에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대부분 중정도에서 중상 정도였다(김수지 등, 1996; 김현미 등, 1997; 김현미 1998; 노춘희와 송경애, 1997; 송경애와 노춘희, 1996; 서보경, 1995; 윤영미, 1997; 이영현, 1995; 장희정 등, 1998; 황미혜 등, 1998). 반면 정신과 분야의 연구는 이광자와 김경희(1999)가 정신보건 간호사 수련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점 만점에 3.76-3.80점으로 나타나 다른 연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수와 유숙자(2001)의 연구에서 정신보건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76-2.83점으로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개념 역시 2.66-2.82점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했으나, 이광자와 김경희(1999)의 연구 결과보다는 낮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우리 나라의 경우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작업조건이 열악하며 갈등과 불확신 속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이상미, 1995), 이는 간호사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참여를 막고, 간호업무에 대한 갈등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직업에 불만족하게 됨으로써(박정호, 1981) 전문직 자아개념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해석을 하게 한다. 이광자와 김경희(1999)의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높

은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간호사들이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 중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를 비교해 보면 정신보건간호사가 일반간호사에 비해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직실무, 만족감, 의사소통의 3가지 구성영역모두에서 정신보건간호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직 실무의 세 가지 영역 - 지도력, 융통성, 기술- 또한 정신보건간호사가 더 높았다. 이는 교육이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손은진, 1996; 안인주, 1990)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영역별로 보면 두 군 모두 만족감이 가장 높고 정신보건간호사는 다음이 전문직 실무, 의사소통 순이었으며 일반간호사는 다음이 의사소통, 전문직 실무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만족감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정신보건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정신간호사의 만족감을 높여 준 것으로 사료된다.

두 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결혼상태, 학력, 그리고 근무경력, 월수입에 따라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많고 근무경험이 많은 경우에, 학력이 높고 월수입이 많은 경우 자아개념이 높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아지고 근무경력이 증가됨에 따라 월수입이 증가하면서 지위가 안정되고 자신감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선행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김현미, 1998, 양길문, 1990; 장희정 등, 1998).

두 군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일반간호사는 직무만족, 문제해결능력과 연령, 종교(기타의 종교, 불교)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보건 간호사는 직무만족과 문제해결능력만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특성은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직무만족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황미혜 등, 1998; 서보경, 1995; 윤영미, 1997)의 결과들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으나 직무 만족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일반적 특성과 함께 요인으로 포함시켜 분석한 경우는 드물어 다른 연구들과 직접비교는 어려웠다.

한 개인이 직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직무 만족도라 하며, 다른 태도들과 마찬가지로 인지, 정서, 행동 경향들의 복합체이고 조직의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볼 때(박정호 등, 1992) 간호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없을 때에는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전문직업인으로서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고 본다(황미혜 등, 1998).

V. 결 론

본 연구는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병원 정신과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 436명과 정신보건간호사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일반간호사는 2.66 ± 0.27 점, 정신보건간호사는 2.82 ± 0.27점으로 정신보건간호사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00). 영역별로는 전문직실무(p=0.0000), 만족감(p=0.0024)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직 실무 중 지도력(p=0.0000), 융통성(p=0.0000), 기술(p=0.0000)면에서 모두 두 군간에 차이가 있었다.

2. 두 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를 보면 연령(p=0.003), 결혼상태(p=0.0001), 학력(p=0.0005), 종교(p=0.0144), 동기(p=0.0001), 근무경력(p=0.0250), 정신과 경력(p=0.0143)에서 일반적 특성과 집단간의 상호작용이 없이 정신보건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자아개념이 높아 두 군간에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연령(p=0.0029), 결혼상태(p=0.0041), 학력(p=0.0038), 근무경력(p=0.0121), 월수입(p=0.0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3. 정신보건간호사는 직무만족과 문제해결 능력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직 자아개념의 43.3%를 설명하였으며, 일반간호사는 직무만족, 문제해결능력, 연령, 그리고 종교(기타의 종교, 불교)등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53.0%를 설명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병원 정신과에 근무하는 정신보건 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며, 최근 대두된 정신보건간호사의 전문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 요소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하여 직무만족과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교육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김명희 (1985). 간호전문직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3개 대학 부속병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지, 노춘희, 한영숙, 정금희 (1996). 임상간호사의 전문직자아개념과 간호전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의 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5(2), 5-18.

김태현 (1998).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역할수행,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미, 황미혜, 전성주, 장군자 (1997).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지역사회간호학회지, 8(2), 327-336.

김현미 (1998). 임상간호사의 자용성과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6(2), 278-289.

노춘희, 송경애 (1997). 임상간호사의 자아존중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4(1), 61-71.

박정호 (1981). 한국에서 간호교육과 간호업무의 이중성. 대한간호, 20(4).

박정호, 김소인, 김문실, 한성숙 (1992). 간호행정학. 서울: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서보경 (1995).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도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은진 (1996). 임상간호사의 자아개념과 간호전문직에 대한 태도.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경애, 노춘희 (1996).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6(1), 94-106.

- 송인자 (1993). 간호 이미지에 관한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및 일반인의 견해비교. *대한간호*, 32, 55-62.
- 안인주 (1990). 간호사의 자아개념과 간호전문직 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경숙 (1999). 정신보건간호사의 역할인식과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길문 (1990). 일 종합병원간호사의 성격특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수, 유숙자 (2001). 병원과 지역사회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의 전문적자아개념.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2), 351-362.
- 유정수 (1993). 문제해결 훈련 프로그램의 모형개발과 그 효과: 인지-행동 중심의 프로그램과 인지-정의-행동 중심의 프로그램간의 효과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영미 (1997). 병원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연구. *최신의학*, 40(11), 55-76.
- 이경순, 하양숙, 김명자, 노춘희, 양수, 이정섭, 임영숙 (2000). *정신건강간호학*. 서울: 현문사.
- 이광자, 김경희 (1999). 정신보건간호사의 수련과정이 전문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8(2), 268-279.
- 이상미 (1995). 간호사의 직무 특성과 개인의 성격이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25(4), 790-806.
- 이영현 (1995). 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과 근무성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충순, 한은선, 황태연 (1996). *현대정신보건과 지역사회*. 서울: 수원시 정신보건센터.
- 장희정, 성명숙, 주영희 (1998). 임상간호사의 자율성과 전문적 자아개념. *기본간호학회지*, 5(2), 324-340.
- 황미혜, 전성주, 정복례 (1998). 임상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9(2), 518-532.
- Arthur, D. (1990).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7, 712-719.
- Geiger, J. F. K., & Davit, J. S. (1988).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 *Nursing Management*, 19, 50-58.
- Hall, C. S., & Linzey, G. (1970). *Theory of personality*. John Wiley & Sons, Inc Purkry.
- Hepner, P. P., & Peterse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29, 66-75.
- Johnson, B. S. (1998). The 5R's of becoming a Psychiatric nurse practitioner: rational, Readying, Roles Rule, and Reality.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36(9), 20-24.
- Leddy, S., & Pepper, J. M. (1985). *Conceptual bases of professional nursing*. Philadelphia, Lippincott Co.
- Slavitt, D. B., Stamps, P. L., Piedmont, E. B., & Hasse, A. M. (1978). Nurse'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satisfaction. *Nursing Research*, 27(2), 114-120.
- Strasen, L. (1989). Self concept : Improving the image of nurs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19(1), 4-5.
- Stuart, G. W., & Sundeen, S. J. (1995).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Mosby Co.

ABSTRACT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 and General Nurse in Psychiatric Ward

Park, Mi Sun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Yang, Soo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Yu, Sook Ja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between the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PMHNP) and general nurse in psychiatric ward was comparable. The results were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the construct of professional self concept and mak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program increasing professional self concept.

Method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7 PMHNP and 436 general nurse in psychiatric ward.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PSCNI by Arthur (1990), PSI by Heppner and Peterson(1982) and 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 by Slavitt et al.(1978). With the aid of the SAS, t-test, two-way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Result : 1. The average item score of PSCNI of PMHNP was 2.82 ± 0.27 , and that of general nurse was 2.66 ± 0.27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was found($p=0.0000$).

2.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he score of professional practice($p=0.0000$), satisfaction($p=0.0024$), leadership($p=0.0000$), flexibility($p=0.0000$) and skill($p=0.0000$).

3.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observed in terms of age($p=0.0003$), marital status($p=0.0001$), education($p=0.0005$), religion($p=-.0144$), motive ($p=-.0001$), length of service as a nurse($p=0.0121$), the length of service in psychiatric unit($p=0.0143$).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ith group and age, marital state, education, religion, motive, length of service as a nurse, length of service in psychiatric unit.

4. Job satisfaction(JS) and problem solving inventory score(PS) were found to be the highest factor predicting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between the PMHNP and general nurse. JS and PS accounted for 43.4% in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PMHNP, whereas PS, JS, age and religion accounted for 53% in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general nurse in psychiatric ward.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we need to develop programs and polices to increase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particularl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s.

Key words : professional self concept,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